

서독의 가축사육현황

(단위 1,000)

가축	년도	61-65	73	74	75
소		13, 113	13, 892	14, 364	14, 430
말		563	283	320	325
돼지		16, 930	20, 028	20, 452	20, 234
면양		953	908	1, 016	1, 040
산양		24	40	38	35
닭		68, 522	99, 712	96, 689	89, 377
오리		1, 667	1 364	1, 262	1, 103
칠면조		364	689	854	737

양계현황

EEC(유럽경제공동체) 여러나라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는 3억수에 달하며 이 중에서 서독이 7,200만수로 24%, 프랑스가 6,700만수로 (22%), 이태리 6,600만수 (22%) 그리고 영국이 5,900만수로 1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서독에서는 브로일러 종계를 합한 1975년말 현재 총 닭의 사육수수는 8,900만수로 인구 1인당 1.35수의 사육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 식량국(食糧局)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계란 총생산량은 153억개이고 육계 생산은 19만 TON으로 국민 1인당 계란 285개 닭고기 9kg의 소비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로 네델란드와 벨기에로부터 육계 30만 TON과 계란은 전체 요구량의 17%를 수입하였다고 한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대한 독일국민의 기호성과 관련되어 브로일러의 사육 수수는 1974년에 10% 75년에는 8.3%가 줄어들고 그 반면에 약간씩 증가하는 산란계 사육수수는 75년에 4.2% 증가라는 통계를 보였다.

서독은 선진공업국으로서의 면모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부터 서로 국경이 밀접한 네델란드와 벨기에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양계산업은 대규모의 기계화된 농장 그리고 자동화된 시설확충에 심혈을 기울

려 왔었다.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력의 비싼 임금 때문에 모든 사양관리가 자동화로 변모했었지만 70년대 초반에는 자동시설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질병대책의 소홀로 인한 양계농가의 손실과 미국등지로부터 가금생산물의 대량 유입수출로 한때 곤경을 치루게 되었다. 이때 EEC에서는 양계산업의 발전을 제한 할것이나 아니면 보호육성을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서독은 꾸준히 양계산업에 지원을 하였고 더욱 완전한 자동시설의 보완으로 전체 양계농가의 50%이상이 완전 자동화계사로 변모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양계 자동기구 제작회사인 Big Dutch man에서는 1958년부터 자동급이, 급수, 계란수집, 계란선별, 그리고 계분처리등에 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시판하여 1970년까지 6억 8천만수용의 자동케이지를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에 판매하였고, 아직까지 이 자동케이지는 더 이상 개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리하다고 호평을 받고 있다. 또 Diamond 회사, Salopian회사는 30만수~50만수 규모의 농장시설을 쉽게 자동화체제로 만들수 있는 고도의 기술로서 아프리카와 유럽 공산국가에 진출하여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들 회사들이 제시한 완전 자동화 계사에 필요 한 인력의 수를 보면 50만수규모의 채란계 농장에서 계란운반과정에 필요한 여자 4명과 계란 선별과정에 남자 2명, 제사내의 관리인 1명 그리고 기타 관리에 필요한 남자 1명등 모두 8명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임시고용원에 대한 임금지출을 감안해도 다른 일반양계농가의 인건비에 비하여 5-10%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우리의 현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양계산업이지만 이러한 자동화 시설에서는 닭들이 건강하고 폐사율은 적지만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있는 어떤 요인이 있

어 닭들의 능력은 전반적으로 자동화 되어있지 않은 양계장들 보다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EEC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양계의 지식이나 경력이 우수한 경영자들의 농장과 처음 시작하는 농장에 있어서 수익의 차이는 없었다고, 결론 지으면서 이런현상은 자동화 시설의 보급에 의한 양계기술의 불필요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기업화된 서독의 양계산업 일지라도 공업발전에 따라서 자동화체제만이 중점적으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품종개량사업이나 사료자원개발등에 대한 독일만의 독창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1960년에 전업양계 농장으로 출발했던 라만(Lahmann) 육종회사는 15년 동안 새로운 품종개발과 능력개량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로 1970년에 연간 산란수 215개에서 1975년에는 237개로 능력을 개량하였고 1980년에는 250개의 능력을 가진 닭을 육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서독의 양계가들로 부터 서독 양계산업의 기수로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 능력개량에 노력을 가하고있

다.

1975년부터는 다른나라에서도 Lahmann 회사를 신뢰하게 되어서 이육종 회사는 시리아에 500만개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P.S농장을 설치하였고 이란과도 연간 550만수의 브로일러 생산농장, 유고슬라비아와 30만수의 병아리 수출 계약, 그리고 알제리아도 년 300만수의 브로일러 수출계약을 맺게되었다. 그후 이라과 1억 4천만 마르크에 달하는 P.S농장 설치가 계약되었으며 1977년에는 아프리카의 열대 기후에 알맞은 새로운 육종사업을 위해 수단에 진출하여 연간 300만수의 브로 일러와 1500만개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농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양계산업의 외적인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독일이지만 자동화 체제의 더욱 고도화된 기술로 각 개체별 산란능력의 기록과 사료섭취량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을 요망하고 있고 좋은 능력의 닭을 육종하는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감에 따라서 내적인 양계산업의 발전도 충분한 재력과 두뇌로서 어느나라 보다도 빠르게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월간양계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려면.....

- ▲ 구 독 료 : 1년분 5,000(송로는 본 협회부담)
6개월 3,000원
- ▲ 신청방법 : ① 우편번호 100. 서울시 중구 양동 44-28 축산회관 4층 대한양계협회 편집부로 소환을 동봉하여 주문하시거나,
② 가까운 우체국에서 서울중앙우체국 대체구좌 519272로 송금하시거나,
③ 본 협회(전화 22 3571~2)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 ▲ 구독연장 : 기왕에 정기구독하시는 분이 기간을 연장하실때는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① 주소가 변경될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② 배달사고는 곧 전화나 엽서로 알려주십시오.
③ 한꺼번에 2년분을 정기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